



주안복지재단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밍글리바! 미얀마!

'밍글리바'는 미얀마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지난해 10월 21일 사회복지법인 주안 복지재단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소,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기쁨의 샘 2016년 12월호 소개). 그 이후 세 기관은 난민 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난민 등 이민자 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민자 정착 지원을 위한 정보 교류 등의 활동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난민 아동들의 경우 타국에서의 정착 문제, 언어 문제, 그리고 부모님들이 바쁜 관계로 잘 놀아주지 못해 건전한 인격 형성과 관계 형성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법무부의 난민 담당 공무원들의 진단이었습니다. 이들

이 한국에서 잘 적응해서 건전한 한국인으로 잘 자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법무부, 어울림이끌림, 주안복지재단이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고민하고 회의도 여러 번 하면서 미얀마 난민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작은 결실로 지난 12월부터 미얀마 재정착 난민 아동들이 주안복지재단 산하 시설인 주안에 종합사회복지관,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 주안빌딩에 와서 참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멘토들이 아이들을 이곳으로 인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곳에서 함께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본인들의 고향인 미얀마에서나 아니면 난민촌이 있던 태국에서는 해보지 못했던 놀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자치활동** 자신들끼리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서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고 왜 그 규칙들을 지켜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런 작은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원리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 ② **오감놀이** 아이들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발달시킬수 있는 '요리'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강점에 대해 배워나가게 됩니다.
- ③ **지역생태체험**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내의 생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 ④ **영어놀이**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배움으로서 아동 자신이 세계 속의 한 시민임을 깨닫고 진취적인 생각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이 외에도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12월을 주안복지재단과 함께 보낸 미얀마 아동들은 초등학교가 방학인 1월과 2월에는 영종도에 위치한 난민센터에 부모님과 함께 입소합니다. 그곳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문화와 예절, 역사 등을 배우게 되고, 3월이 되면 다시 주안 복지재단과 산하 시설들과 함께 즐겁게 놀며 한 명의 한국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